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25 Spring
Vol.60



본 매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음성 QR코드를 사용합니다.
QR코드를 확인하세요.



당신의
하늘은

무슨 색인가요?

하루에 한 번, 하늘을 올려다보시나요?

며칠 미세먼지가 말썽이더니 푸른 하늘이 반갑습니다.

미세먼지 ' 좋음', 초미세먼지 ' 좋음', 내 마음도 ' 좋음'

맑은 공기에 들숨과 날숨을 크게 ' 후'하고

평범한 봄날의 일상을 보냅니다.



Contents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25 Spring Vol.60

theme

공기의 시간

기후변화와 대기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

발행인

임상준

발행일

2025년 4월 11일 통권 60호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오류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전화

032-590-3017

제작대행, 인쇄

경성문화사 02-789-2999



K-eco 웹진 바로가기

본 매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음성 QR코드를 사용합니다.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한 인쇄 파트너사에서 FSC® 인증 용지,
공기를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I 자연 가까이 테마 이야기

02 지구 생각

당신의 하늘은 무슨 색인가요?

06 취임사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



08 인터뷰

배우 송일국



12 인터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우정현 교수

16 환경 트렌드 백서

탄소중립·기후감수성·그린워싱·순환경제

18 Column

절망의 지구 앞에 선 푸른세대,
행동으로 답했다

20 인포그래픽

숫자로 보는 미세먼지

22 K-eco 아카이브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I 사람 가까이 K-eco 이야기

24 K-eco 포커스 I

한국환경공단 창립 제15주년 기념행사

26 K-eco 포커스 II

한국환경공단-인천시
봄철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28 K-eco 버킷리스트

테라리움 만들기



32 친환경 라운지

지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한 끼 챌린지



34 동상동물

독서 동호회 '북치고 잔치고'

38 기자단이 간다

푸루美 14기 환경 알리미로 거듭나다

40 K-eco 메이커스

기후대기본부 탄소중립지원처
기후정책지원부

I 소통 가까이 환경 이야기

44 글로벌 환경 리포트

세계 속 친환경 도시

48 에코 스페이스

책책, 서촌의 작은 친환경 공간



50 에코 로드

울산 해파랑길 8코스



52 에코톤

미세먼지와 생활 속 대처법

54 건강 라운지

봄철 불청객, 알레르기 주의보!

56 K-eco 뉴스

58 K-eco 이벤트

59 에코 체험

식물 이름표 만들기

61 나도 K-eco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도약」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환경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보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에 첫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말 취임하고 벌써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이사장으로서 직접 느낀 한국 환경공단 업무는 가히 ‘환경 백화점’이라고 칭할 만큼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의 집합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40여 년간 수질-대기-토양 등 전통적 환경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아울러 작금의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최일선의 임무를 부여받아 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힘입어 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최초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업무 수행의 가치를 국민들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가 이제 더 이상의 혁신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순환경제, ESG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수많은 도전(challenge)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단 조직구조와 사업방식이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다가올 미래에도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가를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

미국의 대학교 졸업식에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등 유명인들이 축사를 하는데, 그중에 자주 인용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create)하는 것이다.”

이 말은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처음 말한 것이지만, 이후에 피터 드러커와 같은 미래 학자들과 유수의 기업 CEO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창조하는 것(create) 대신에 만드는 것(make), 건설하는 것(build), 발명하는 것(invent)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환경정책의 프레임을 짜는 일이 환경부의 몫이라고 한다면 공단은 그 프레임에 각각의 색깔을 입혀 그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색깔을 입히는 일이 지금과 같은 조직구조와 업무방식에 꼭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녹색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1,700조원에 달해 반도체 시장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규모는 34조원으로 2%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우수한 환경시스템과 최고의 기술역량이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국내 환경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진출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진출은 단순히 공단의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기업과 글로벌 시장에 함께 진출해 수익을 만들고 이를 다시 국내 시장의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경제의 골대는 옮겨지는 중

이미 2013년에 호주의 두 과학자는 지하자원을 추출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이어지는 기존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자원사용을 억제(reduce)하고 자원을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재이용(recovery)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가 6번째의 물결로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EU가 2030까지 재생플라스틱 30% 사용을 의무화했고, 배터리에서도 재생원료, 항공유에서도 바이오항공유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원료는 국경을 넘을 경제여권(passport)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골대가 옮겨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단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우리의 고객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한발 먼저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전통적 업무 방식에

더하여 사업적 방식(business blood)을 포함한 새로운 유전자(gene)를 도입하는 혁신방안, 개별적 매체 중심의 기존 조직을 민첩하고 유연한 애자일(Agile) 조직으로 전환하는 과제 등등이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유전자(gene) 도입도 깊이 고민할 시점

지난 3월 17일 공단의 새로운 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그린 리부트(green reboot) TF’가 출범했습니다. ‘그린 리부트’는 말 그대로 다시 시작하며 기관의 성능을 최적화시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가 직접 TF의 팀장을 맡았지만, 저는 그러한 변화의 시동을 거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혁신과제의 단순한 성패보다도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노력, 그것이 더욱 성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 리부트’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단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 분께서 고견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임 상 준



감동적 열연을 선보이기로 유명한 배우 송일국은 '지구 지키기'에도 진심을 다한다. 일상생활이라는 무대 위에서 환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깊이 고민하고 적극 실행에 옮김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연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글 강진우 사진 오충근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진심 어린 열연





음성안내 QR코드



배우 송일국

Q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최근 몇 년간 연극과 뮤지컬에 집중하고 있어요. 2010년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기념 연극 ‘나는 너다’에서 안중근 의사와 그의 아들 안중생을 연기하면서 관객과 함께 호흡해야만 느낄 수 있는 감동적 희열을 맛봤는데, 이때의 경험이 저를 연극과 뮤지컬 무대로 이끌었죠. 이후 ‘대학살의 신’, ‘맥베스’ 등의 연극과 ‘브로드웨이 42번가’, ‘맘마미아!’, ‘애니’ 등의 뮤지컬에 출연하며 무대에서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올 5월에 열리는 2025 밀양강 오딧세이 뮤지컬 ‘칼을 품고 슬퍼하다’를 연습하는 데 여념이 없죠.

Q ‘칼을 품고 슬퍼하다’는 어떤 내용의 뮤지컬인가요?

임진왜란 때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약한 밀양 출신 고승 사명대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이에요.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국보 영남루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삼은 야외 뮤지컬로, 극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미디어 아트와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기술이 투입되죠. 당시 구원군의 수장으로 조선에 온 명나라 이여송 장군이 ‘사명대사가 없었다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큰 공을 세웠지만 다른 영웅들에 비해 조명될 기회가 적었던 만큼, 이번 뮤지컬을 통해 제가 맡은 배역인 사명대사의 진면목과 활약상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제작발표회에서 밝히신 “칼을 품고 성공시키겠다”라는 각오가 인상적이었어요.

‘칼을 품고 슬퍼하다’는 여러모로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뮤지컬이에요. 지금껏 출연한 뮤지컬에서 주요 인물은 다 수 맡아봤지만, 극 전체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소화해야 할 넘버(노래)도 많아서 뮤지컬 연습과 보컬 트레이닝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더욱 실감 나는 연기를 위해 머리카락도 2~3mm만 남겨 두고 자를 예정입니다.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단 3회만 열리는 뮤지컬을 위해 머리까지 자르나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만큼 이 뮤지컬에 ‘진심’입니다. 제가 뮤지컬 제목을 따서 ‘칼을 품고 성공시키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죠.

Q 작년 9월에 열린 ‘제3회 하나뿐인지구영상제’의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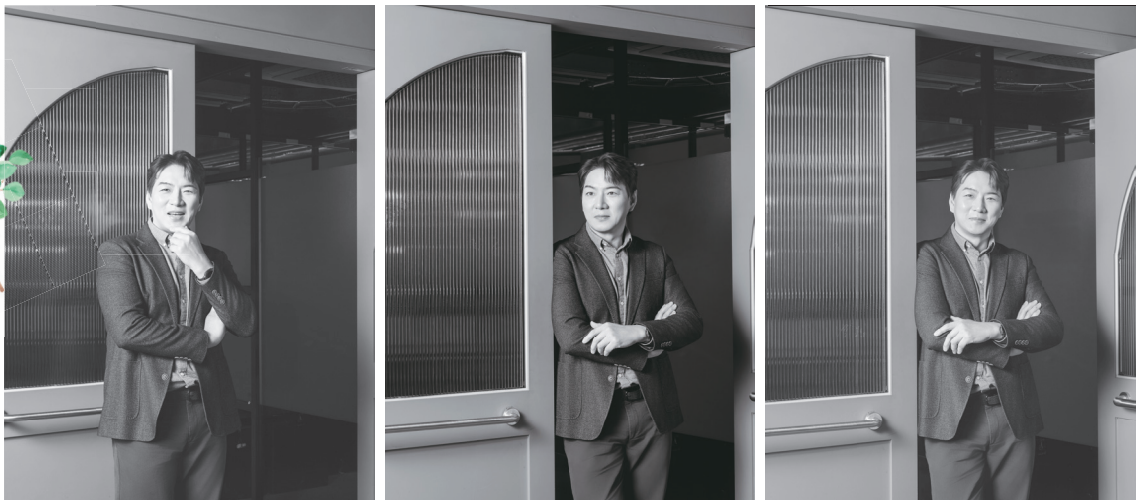
이제는 환경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저 또한 기후위기에 대해 강한 우려감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명예홍보대사 제의가 들어와서 흔쾌히 수락했어요. ‘하나뿐인지구영상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영상제에 출품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기후위기가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현안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굳혔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Q 여행 중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2017년 가족들과 함께 몽블랑 기슭에 자리한 프랑스 샤모니라는 관광도시를 여행했을 때였습니다. 빙하를 볼 수 있다는 몽땅베르 빙하 계곡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빙하까지 가는 경로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산악기차를 타고 능선을 따라 올라가더니, 중점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케이블카에서 하차한 뒤에는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죠. 내려가는 동안 계곡 바위에는 네자리 숫자가 쓰인 현판이 주기적으로 붙어 있었는데, 내려가는 내내 숫자가 커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빙하 동굴에 도착한 뒤 설명을 듣고 나서야 현판이 있던 각 지점이 과거 해당 연도에 빙하가 존재했던 지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 현판부터 맨 아래 현판까지 100m는 넘어 보였으니, 불과 수십 년 사이 그만큼의 빙하가 사라진 거죠. 앞서가는 대한, 민국, 만세 삼동이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성인이 됐을 때 눈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그야말로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Q 기후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일상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도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자원을



‘하나뿐인지구영상제’에 출품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기후위기가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현안이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낄 수 있고, 탄소배출량도 적어질 테니까요. 안타까운 점은 정확한 분리배출 지침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이 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같은 플라스틱이니까 분리배출 표시를 보지 않고 둘을 섞어서 분리배출하는 식이죠. 이런 불상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각 재질의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는 QR코드를 붙이면 어떨까?’하는 상상까지 해 봤죠. 굳이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각각의 분리배출법을 한층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분리배출과 더불어 최근에는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새삼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무척 편리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웃음)

Q 올해 중학생이 된 세 아들과 환경 얘기를 자주 나누시나요?

서로 바쁘다 보니 특별히 시간을 내서 환경교육을 시키거나 관련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편이에요. 분리배출을 할 때 꼭 페트병 라벨을 떼고 택배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제거하니, 그걸 본 아이들도

어느새 저와 똑같이 분리배출을 하더라고요.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생활 속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려고 해요.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 5월에 열릴 ‘칼을 품고 슬퍼하다’를 온전히 선보이기 위해 전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이후에는 제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무대에 오르려 합니다. 배우는 선택 받는 직업이잖아요. 더 많은 연출진과 관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우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게 제 평생의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올해 여름이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기후변화와 대기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기후-대기 통합평가모형을 개발하며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정현 교수를 만났다.

글 임성은 사진 김규남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선도하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우정현 교수

Q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교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기후변화와 대기환경 분야에서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책과 사회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 통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 인벤토리 구축, 대기화학수송 모델링, 환경기술융합 연구 등입니다.

그중 기후-대기 통합평가모형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과학-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문제로 바라보며 비용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모형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와 자원, 환경오염, 인체피해 등의 문제를 전 세계,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및 지방자치단체 각 규모에서 통합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연구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우리 연구팀은 2016년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기후-대기 통합관리 모형인 GUIDE를 개발하여 2019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전 지구(동북아시아) 기후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목표로 GUIDE-Global 모델을 개발 중이며, 그 성과로 2023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 및 ‘기후·대기 분야 최우수 성과’에 선정됐습니다.

또한, 국내 및 아시아 대기질 기여도 분석, 예보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배출 인벤토리 구축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NASA Group Achievement Award, 2020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후 KORUS-AQ의 후속 연구인 ASIA-AQ 프로젝트에서도 우리 연구실이 개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가 공식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Q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상황이 궁금합니다.

동북아 지역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북아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은 대기오염 개선에 초점을 맞춘 유엔의 협력 플랫폼으로,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몽골 등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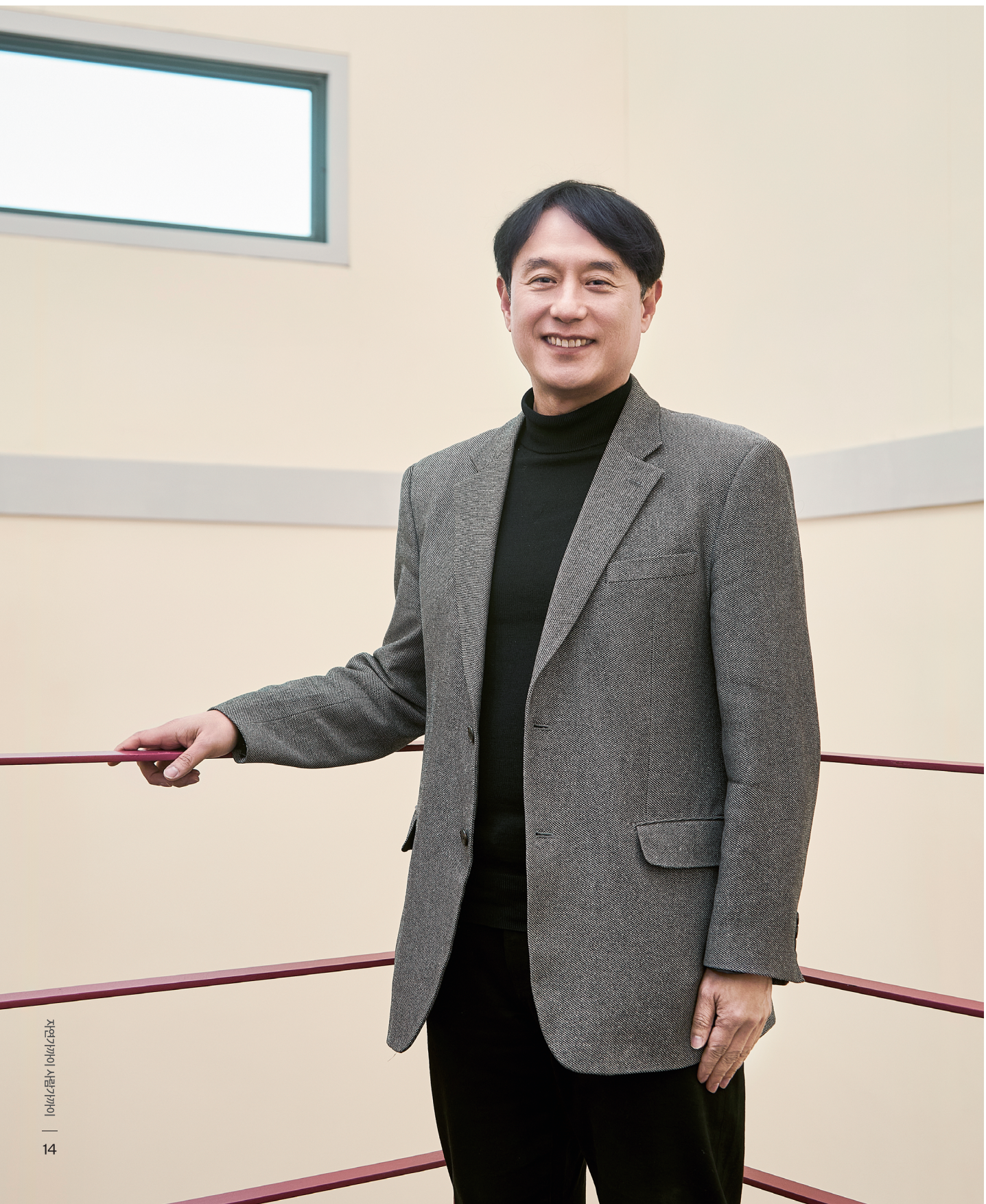
초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국가별 활동 기반 초미세먼지 배출 인벤토리 구축, 동북아 초미세먼지의 중장기적 전망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미세먼지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와 심혈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천식, 만성 폐질환, 심혈관 질환을 유발, 장기적으로 뇌졸중과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Q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이슈가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은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의로운 전환문제와 기후재난으로 피해가 가중되는 취약계층, 취약지역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후재난 예방과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맞춤형 예보 능력 및 도시 공간 구성 강화 등 과학



기술과 회복탄력성 개선 등으로 기후위기에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Q 대기환경 전문가로서 기후위기를 위해 어떤 정책의 마련이 시급할까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별 기후 정책에 대한 카테고리별 중복을 최소화하고 정돈이 되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도 가능하겠지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과학기술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대기환경은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사람의 역할이 크지요. 국제기구에서 당당하게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인재 양성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기후 환경 과학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어떠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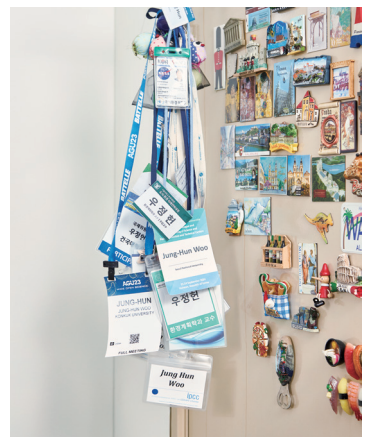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중심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재생에너지, 수소 경제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 기술은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 감축 기술뿐만 아니라 적응 기술에도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축과 적응 기술을 함께 발전시킨다면, 한국이 기후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교수님 연구의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는 단순히 학문적 연구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구자로서 저의 역할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며 이런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는 사명감이 원동력이 됩니다.

Q 연구 외의 시간에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평소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법이 있으신가요?

가족과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등 소소한 일상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주 빼놓지 않고 지인들과 테니스를 치며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강연에도 참여하고요.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법이라면 10년 동안 꾸준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연구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시작했는데, 체력도 좋아지고 생각도 정리 되서 좋은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정년이 10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 오게 된 점이 저에게는 참 의미가 깊습니다. 환경대학원은 제가 환경이라는 분야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알고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한 곳입니다. 퇴직까지 환경 관련 연구를 통해 글로벌 규모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통합평가모형이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선도하고 유엔 동북아시아청정대기파트너십 등의 대기환경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대기오염이 개선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조금 더 깨끗한 공기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요.(웃음)

환경과 관련한 이슈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친환경', '기후위기' 등 필(必)환경시대에 소비 트렌드 역시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계절별로 시의성을 가진 환경 관련 키워드를 소개한다.

글. 함유진

주목해야 할 '환경' 키워드 **봄**편

탄소중립·기후감수성·그린워싱·순환경제

탄소중립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과제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 듯, 계절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이상기후와 극단적인 날씨 변화를 실감하며 기후위기가 점점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를 흡수하는 양을 늘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서 처음 논의되었고,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올봄,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보자.



기후감수성

변화에 대응하는 힘

녹아가는 빙하 위에 양상한 북극곰을 보며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적이 있을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여겼던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기후감수성'은 기후변화의 신호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온 상승을 단순한 날씨 변화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영향을 깊이 고민하는 것이 기후감수성의 시작이다. 최근 '기후감수성'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트렌드에도 자리 잡고 있다. '친환경 제품', '제로 웨이스트'와 같은 용어들이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개인 또한 에너지 절약, 친환경 소비, 탄소배출 감축과 같은 실천을 생활화하며 기후감수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거대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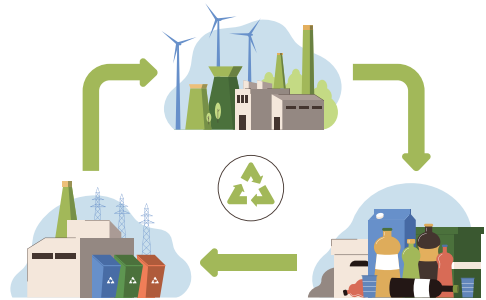
음성안내 QR코드



그린워싱

선한 소비자를 속이는 마케팅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주목을 받으며, 기업들도 앞다투어 친환경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보호와 거리가 먼 제품을 '친환경'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면서 '친환경 패키지'라고 홍보하거나, 환경을 고려했다는 상품을 대량 생산해 결국 대량 폐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린워싱'을 피하려면 '100% 친환경'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공식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기업이 실제로 어떤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소비는 단순한 홍보 문구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동에서 시작된다.



순환경제

소비의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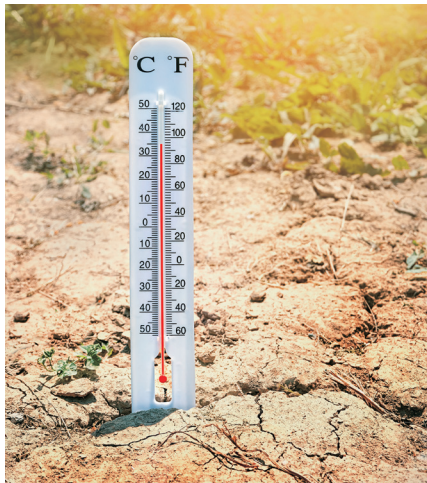
기존의 경제 구조는 생산-사용-폐기의 선형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환경보호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사용 주기를 연장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자원을 재활용해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자연 분해가 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들 또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리유즈(Reuse)', '리사이클링(Recycling)', '셰어링 이코노미(Sharing Economy)' 등의 전략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순환경제'는 절약을 넘어 생산과 소비의 모든 단계에서 자원의 순환을 고려하는 구조이다. 지속가능한 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절망의 지구 앞에 선 푸른세대, 행동으로 답했다

기후문제를 취재하다 보면 쉽게 열패감에 빠진다. 202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발표 이후 2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대응은 지지부진하고, 적극 대응해야 할 선진국들은 각국 정치 상황 등으로 제자리걸음에 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2100년은 물론이고, 2030년에도 '살기 좋은 세상'과 '살기 좋은 계절'이 남아있을까, 푸른세대에게서 희망을 찾아본다.

글 황덕현(뉴스1 경제부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절망의 기후, 행동하는 푸른세대

결정권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에, 청년과 청소년들의 행동이 더 빛을 발한다.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MZ세대와 알파세대가 나서서 풀고 있다. 특히 법과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스스로 나서 기후위기 대응에 실천적 해법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청소년과 청년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를 필두로 전 세계 청소년들은 'Fridays For Future' 운동을 통해 거리로 나섰다. 한국에서도 이에 동참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한국에서는 2020년 한제아 어린이를 포함한 62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

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기후위기로 인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미래 세대가 직접 법적 투쟁에 나섰다. 이후 청소년 기후행동 등 청년단체들도 기후소송과 거리 캠페인 등 다각도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주도의 기후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16명의 청소년이 주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 대응 미비를 이유로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주정부가 청소년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몬태나 소송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실질적 승소를 이뤄낸 사례로 기록되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Fridays for Future)

지구의 미래와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청소년의
글로벌 커뮤니티





음성안내 QR코드



출처. 지구를 닮는 사람들

달리기는 기본, 내 주변 정화는 덤...

마라톤 문화를 바꾼 청년들

법적 대응을 넘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청년들의 움직임도 다양하다. 국내에서는 청년들의 주도로 ‘플로깅(쓰레기 주우며 달리기) 커뮤니티’가 조직돼 무배출 달리기 행사인 ‘무해런’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2023년 선사마라톤에서 국내 처음으로 다회용 컵 급수대를 시범 운영했고, 이후 다양한 대회에서 일회용 컵 3만 6,000개를 절감하기도 했다.

유튜버와 틱톡커 등 인플루언서들도 앞장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채널 ‘에코팀’은 기후변화의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하며 구독자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유튜브 ‘쓰레기왕국’의 경우, 쓰레기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며, 일상 속에서의 환경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스타그램과 웹툰에서도 환경활동을 엿볼 수 있다. 지구 환경보호와 관련된 일상 속 실천을 다룬 인스타그램 ‘위시에코’와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된 미래를 주제를 한 네이버 웹툰 ‘기후위기인간’은 친근한 캐릭터와 소재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MZ가 바꾼 소비의 법칙

글로벌로 시선을 넓히면, MZ세대는 ‘그린슈머(Green Consumer)’라는 트렌드로 환경보호에

마라톤대회에서
무해한 러닝
(무해런)이
시범 운영한
다회용 컵 급수대

동참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에서는 개인 텀블러나 다회용기 사용이 일상화되었으며,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하는 움직임도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파타고니아는 ‘우리 제품을 구입하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 캠페인을 통해 과잉 소비를 비판하고, 제품 수명을 늘리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독려했는데 많은 MZ세대가 열광했다. 이는 소비자들로부터 오히려 높은 신뢰와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화장품 브랜드 러쉬(Lush)는 포장재를 없앤 ‘네이키드(Naked)’ 제품을 출시하며,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확산시켰다. 미국 브랜드 올버즈(Allbirds)는 버려진 플라스틱 병, 천연 울, 사탕수수 등 다양한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신발을 제작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MZ세대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청년들의 기후행동은 법정, 거리, 일상 모든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기후 위기에 무기력해진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위기의 시대, 푸른세대는 법정과 거리, 일상에서 기후를 바꾸고 있다. 그들의 작은 실천이 지구의 내일을 지켜내고 있다.

‘우리 제품을
구입하지 마세요’
(Don’t buy this jacket)

환경보호를 제일의
가치로 생각하는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광고

DON'T BUY THIS JACKET



봄꽃 만개한 봄이 왔지만 기분 좋게 산책을 나가기가 꺼려진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다.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미세먼지, 숫자를 통해 짚어본다.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환경부, 세계보건기구(WHO)

숫자로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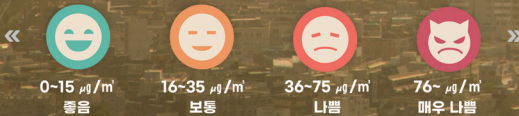
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 등급($\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농도 등급($\mu\text{g}/\text{m}^3$)



PM 2.5 초미세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의 지름이 $2.5\mu\text{m}$ 로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의 크기이다.

PM 10 미세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의 지름이 $10\mu\text{m}$ 로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의 크기이다.

86.1%

황사 및 중간 정도의
미세먼지 차단

95.7%

초미세먼지까지
강력 차단

99.4%

초미세먼지,
바이러스 차단

KF 99

KF 94

KF 80



마스크 등급에 따른
미세먼지 차단율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는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이다. 미세먼지의 인공 발생원에는 차량, 공장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배출물이 포함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1군 발암 물질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기관지염, 심장병,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환경부는 2022년 12월 27일,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을 수립했다. 5대 핵심전략으로는 ①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구축, ②사업장 배출 관리 고도화, ③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④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⑤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이다.

15.6 $\mu\text{g}/\text{m}^3$

2024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024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5.6 $\mu\text{g}/\text{m}^3$ 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 대비 38.1%, 전년 대비 14.3% 감소한 수치다.

서울 11위

전 세계 대기질 순위

전 세계 대기질(AQI) 현황을 보여주는 사이트 'IQ Air'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울은 전 세계 대기질 순위 11위로 나타났다. 1위는 인도의 콜카타, 2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사라예보..., 10위는 중국의 항저우다.

10일

'나쁨' 등급을 넘은 일수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나쁨(36 $\mu\text{g}/\text{m}^3$)' 등급을 넘은 일수가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76 $\mu\text{g}/\text{m}^3$)'일수는 전국적으로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약 700만명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

전 세계 인구 중 공기질이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한계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는 인구 수가 약 91%,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약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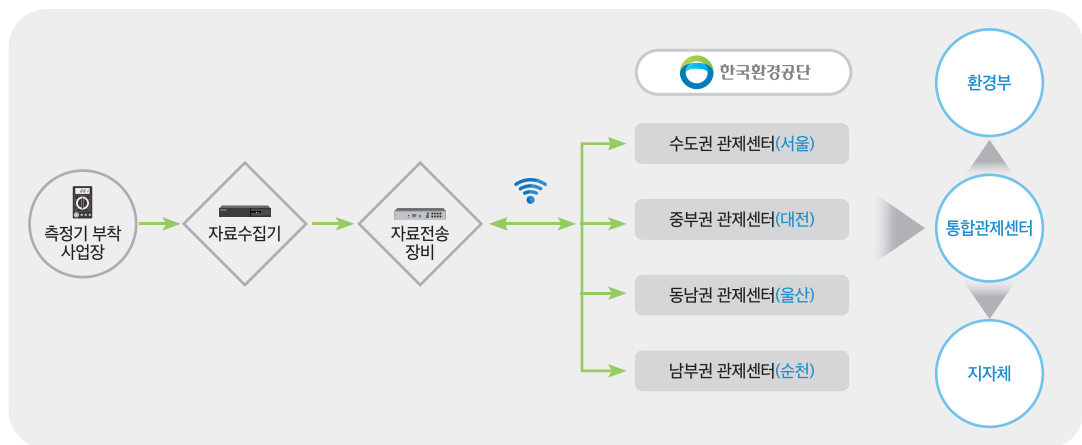
맑고 깨끗한 하늘을 위한 약속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뿌연 하늘에, 봄이면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요즘이다. 미세먼지를 비롯해 사업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도 대기환경 악화에 한몫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맑고 깨끗한 하늘을 위한 관리를 하고 있다.

정리. 편집실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원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굴뚝에서 자동으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는 공단 관제센터에서 관리가 되며 이후 환경부, 관할 시도의 행정자료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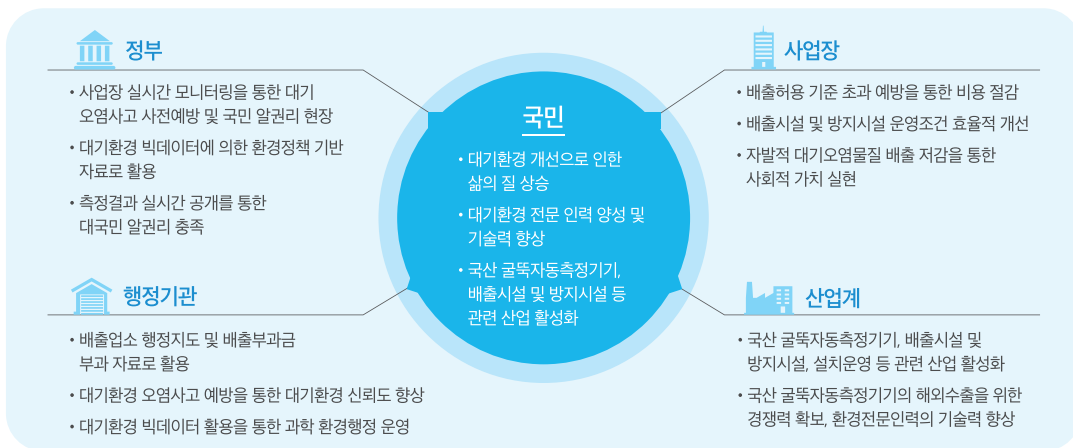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구성>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는 과학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지역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예방 및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과학적 환경 행정에 활용하고 있다.

측정항목은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등 7개 오염물질과 온도, 산소, 유량 등 3개 보정항목이다. 설치 대상 시설(발전, 소각시설 등 59종)은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10톤 이상 사업장(1~3종) 중 각 세부 조건에 해당하는 배출 시설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24시간 상시 관리하고, 행정기관은 대기오염사고의 사전예방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 등에 활용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유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방지시설 운전조건 개선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2024년 기준) 전국의 927개 사업장, 3,286개의 굴뚝에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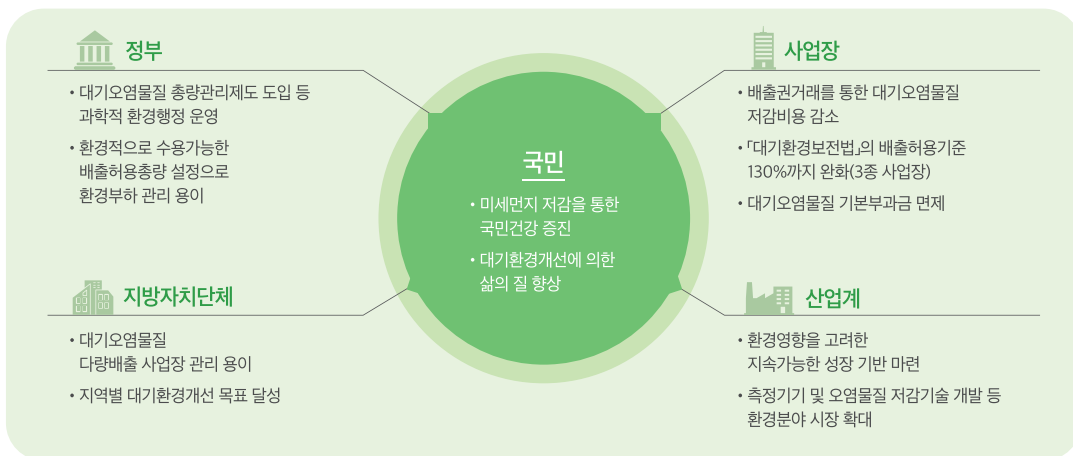
<국립원격감시체계 운영효과>

사업장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사업장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별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할당량 초과 시 할당량 식감 및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0년 4월 3일부터 전국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총량관리제는 현행 농도 규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해 전체적인 환경부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질소산화물 43%, 황산화물 15% 저감 효과

총량 관리대상 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먼지(TSP)이다. 총량관리사업장은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간 한 해라도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미세먼지(TSP)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량관리사업자와 공동으로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자발적 참여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에게는 협약이행을 촉진하는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녹색기업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시행 전과 이후의 사업장 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하면 질소 산화물은 43%, 황산화물은 15%가 각각 줄어든 효과를 거뒀다.



<사업장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효과>



협력과 혁신으로 새롭게 만들어 갈 희망찬 미래

창립 제15주년 기념행사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3월 4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창립 제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직원들과 외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의 지난 15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과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글. 한울 사진. 오충근

우리가 걸어온 15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역사를 써온 한국환경공단이 창립 15주년을 맞이했다. 2010년 통합 설립 이후, 한국환경공단은 기후·대기, 물·토양, 자원순환, 환경시설, 화학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선도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온 임직원들의 노력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3년 연속 'A' 등급 달성이라는 성과는 공단의 우수한 경영 능력과 혁신적인 변화 관리, 그리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이다.

지난 15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기 위한 기념식 행사에는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과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하여 공단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그동안의 노고를 함께 격려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환경공단이 걸어온 길을 주제로 한 영상을 시청했다. 그간 한국환경공단이 이뤄낸 성과를 소개하는 영상은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영상이 끝나자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근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근무 유



공자 표창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환경보전 및 공단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주는 상으로, 수상자들에게 쏟아지는 뜨거운 박수가 기념식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환경 분야의 내일을 열어가는 선도적 기관으로!

임상준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단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환경전문기관이라는 공단의 비전을 보다 빠르게 현실화하고, 환경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상준 이사장은 “외부적으로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이 단결하고 소통하며 혁신을 통해 힘을 모은다면, 우리 공단이 환경 분야의 미래를 창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노동조합 이재학 위원장의 기념사가 진행되었다. 이재학 위원장은 “한국환경공단의 훌륭한 인적 자원과 글로벌 및 디지

털 역량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글로벌 환경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 노동조합도 공단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시와 견제를 통해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기념식 후에는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떡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되었다. 임상준 이사장, 이재학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임원진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떡 케이크를 자르며 기념식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임직원들은 힘찬 박수와 함께 공단의 비전과 목표를 마음속에 새기며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환경 보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과 소통하며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으로서 더욱 힘차게 도약할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열어가길 희망찬 미래를 함께 응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인천시 봄철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3월 13일 인천종합터미널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인천시가 '봄철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진행했다. 공단 직원과 대학생 기자단 '푸루美'가 함께했던 캠페인 현장을 담아본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환경공단

시민의 곁에서 대기환경 정보를 홍보하다

3월 13일,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미세먼지 농도 저감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환경공단과 인천시가 함께 진행한 합동 캠페인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운영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독려하고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 대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농도와 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한 집중 관리 정책이다.

공단과 인천시 직원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의 곁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며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대한 정보를 전했다.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촉구

공단은 인천종합터미널 서쪽 광장에 홍보용 차량을 배치하고 미세먼지 관련 영상을 송출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홍보부스와 영상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공단 직원들은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홍보용 어깨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리플릿을 전달하며 캠페인 홍보에 집중했다.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국민 실천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한 안내도 이어갔다.



한편에서 한국환경공단의 'Airkorea' 앱 설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환경공단 대학생 기자단 '푸루美'와 공단 직원들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Airkorea' 앱을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시민들은 '선물을 받는 기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Airkorea' 앱의 안내를 듣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 뉴스에만 의존했던 어르신들은 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시간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Airkorea'는 국민들에게 대기질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2005년 구축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위젯 서비스와 웨어러블 앱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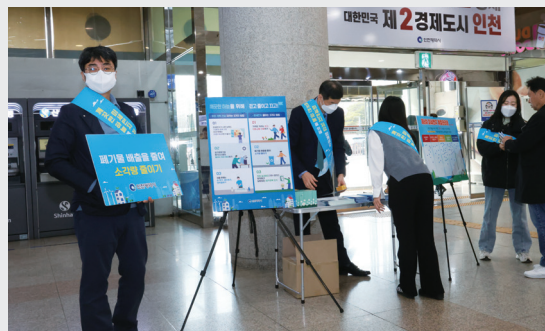


시민들의 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행보는 계속된다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시간이 갈수록 열기를 더했다. 캠페인에 참여했던 한국환경공단 대학생 기자단의 손혜주 학생은 어르신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고 쉽게 소개하며 칭찬을 받기도 했다. 손혜주 학생은 "푸루美 기자단으로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환경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환경인식 개선을 위해 푸루美 기자단으로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라며 캠페인 활동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생활 속 실천사항을 홍보하고,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이 차량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원이 되는 5가지 항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인천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 맞춤형 정책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의 중요성을 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환경인식 개선을 촉구했던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전 국민의 환경을 위한 참여를 촉구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음성안내 QR코드

나만의 작은 정원을 공간에 들이다 테라리움 만들기

봄바람이 살랑이고 여린 새싹이 움트는
생기로 가득한 계절이다. 올봄 나만의
개성을 담은 작은 정원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유리병 안에 작은 세상을 오롯이 담아내는
테라리움 만들기.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생기 넘치는 도전을 담아본다.

글 임성은 사진 오충근



손바닥 안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

젊은 세대에게 인기 있는 취미로 자리 잡고 있는 테라리움. 요즘 식물로 위로 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식집사'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매일 초록을 보면서 초록이 주는 안정감에 빠지고 싶은 이들에게 테라리움은 요즘 트렌드와 잘 맞다.

테라리움(terrarium)은 라틴어의 '땅(Terra)'과 '용기(Arium)'의 합성어로, 습도가 있는 투명한 용기 속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9세기 중엽, 영국 런던의 한 의사가 밀폐된 유리 용기 안에서 식물이 별도의 수분과 양분, 공기의 공급 없이도 잘 자란다는 것을 발견한 후 전 세계에 전파했다. 테라리움은 뚜껑을 닫아 놓아 스스로 증산 작용을 할 수 있어 자주 관리를 하지 않아도 식물이 잘 자란다는 장점이 있다.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김연지 주임은 "평소에 손으로 만드는 건 다 좋아해서 신청했습니다. 유리병 안에 나만의 정원을 만들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라며 공방의 다양한 테라리움에 흠뻑 빠져들었다.

평소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는 걸 좋아하는 민혜인 대리,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테라리움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신청했다는 유승관 과장, 요 근래 식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신민호 대리. 원데이 클래스 신청란에 올라온 테라리움 사진이 너무 예뻐서 신청하게 됐다는 정민지 대리까지.



공단의 일원이지만 부서가 달라 어색했던 분위기는 잠시, 테라리움 공방을 둘러보며 연신 “예쁘다, 예쁘다”를 외치며 오늘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유리 용기에 각자의 개성을 담아낸다

테이블에 흙, 모래, 핀셋, 유리 용기 등 다양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 먼저 강사는 테라리움의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테라리움은 유리 용기 안에서 이끼를 기반으로 식물의 뿌리가 흡수한 물이 수증기 상태로 배출되고 그 수증기가 용기 벽면에 물방울로 맺혀 다시 흙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잘 자라죠.”

가장 먼저 할 일은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배수층을 제대로 만들어야 순환이 원활해져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민혜인 대리과 김연지 대리는 평소 클래스를 들었던 경험 때문인지 누구보다 섬세하고 차분하게 배수층을 만들어갔다. 배수층을 완성한 후 이끼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깔아주었다. 이제는 용기의 앞면을 정한 후, 돌과 식물을 배치할 차례다. 직접 선택한 돌을 배치하니,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은 정원이 보이기 시작했다.

식물이 주는 행복에 빠져들다

이어서 테라리움의 하이라이트인 식물심기가 진행되었다. 오늘 사용할 식물은 ‘비단이끼’, ‘아기덩쿨초롱이끼’, ‘너구리꼬리이끼’, ‘화이트스타’, ‘레드스타’이다. ‘비단이끼’는 테라리움의 잔디 역할을 하고, ‘너구리꼬리이끼’와 ‘아기덩쿨초롱이끼’는 테라리움에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거기에 공기정화 식물인 ‘화이트스타’와 ‘레드스타’는 포인트로 사용하면 좋다.

거침없이 식물심기를 진행했던 유승관 과장의 테라리움은 풍성하면서도 조화로운 배치가 눈에 띄었다. “TV에서 보던 것처럼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네요.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사는 유승관 과장의 테라리움에 처음 해 보는 숨씨가 아니라고 칭찬했다.

신민호 대리는 “비단이끼를 심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모두 살아있는 식물이다 보니 제가 힘을 줘서 이끼가 죽을까봐 신중하게 되네요. 이 작은 공간에 저만의 정원이 생긴 것만 같아 흐뭇하네요”라며 미소를 보였다.

직원들은 시간이 갈수록 테라리움에 집중하느라 말수가 줄었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유리 용기 안의 나만의 정원에 흠뻑 빠져든 모습이었다. 식물심기가 완성된 후, 고운 자갈로 길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피규어를 꽂아 장식했다. 만화 캐릭터 피규어를 꽂으니, 만화 속 한 장면을 옮겨 놓은 듯했다. “와~ 정말 멋져요” 정민지 대리의 말에 민혜인 대리과 김연지 주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혜인 대리는 “매일 볼 때마다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꼭 잘 키워보겠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각자의 테라리움에 흠뻑 빠져든 다섯 사람의 얼굴에는 잠시 힐링을 하고 온 듯 표정에서 편안함이 묻어났다. 강사에게 잘 키우는 법, 더 잘할 수 있는 팁 등 질문을 하는 눈빛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오늘 만든 테라리움은 저마다의 가장 애정하는 공간에서 그들에게 힐링이 되어 줄 것이다.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 후기



민혜인 대리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살아있는 식물을 다루다 보니, 조금 부담이 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기하게도 작은 정원이 되어 가는 모습에 힐링이 됐습니다.



정민지 대리

기후대기본부
사업장대기처 사업장대기통계부

강사님의 말을 잘 따라했을 뿐인데,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작품이 완성된 것 같은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김연지 대리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환경서비스지원부

저만의 개성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집에서 잘 키워보고 싶어요.



유승관 과장

기후대응기금센터 기금기획부

테라리움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차분해지고 잡생각도 없어져 취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잘 키울 수 있는지 그게 고민이네요. ^^



신민호 대리

환경시설본부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사업부

제 실력보다 결과가 너무 좋아 아주 만족합니다. 요즘 식물을 키우고 있어서 더욱 애정이 가고, 잘 키워보겠습니다!

지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한 끼 챌린지

일상에서 소소한 실천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코너는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소,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한 끼 식사로 실천하는 공간이다. 맛있고 건강한 한 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리: 편집실



이영애 주임

본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처 총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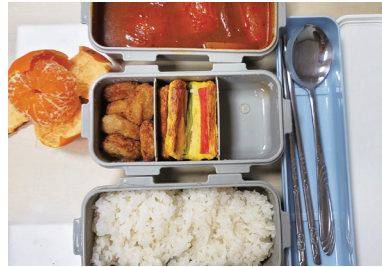
이 사진은 3월 11일에 찍은 점심 도시락입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도시락, 내가 좋아하는 도시락을 먹는 것 또한 큰 기쁨이지요. 이날 도시락은 제가 좋아하는 당근라페와 계란과 야채를 넣은 샌드위치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집에 있는 과일을 넣어 만든 건강식 요거트에 견과류를 곁들였습니다. 준비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고 맛있는 점심 메뉴입니다. 먹고 나서도 크게 졸리지 않고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맛있어서 주 2~3회 정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연상민 대리

본사 K-eco연구원 측정기검사부



저의 친환경 한 끼는 점심 도시락입니다. 집에서 전날 저녁 반찬이나 냉동해 둔 반찬들을 도시락통에 담아와 점심으로 먹습니다. 밥은 냉동 후 해동해서 먹으면 즉석밥보다도 훨씬 맛있습니다. 이 도시락은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한 끼입니다.



이건호 대리

본사 환경시설본부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설계부



부모님이 주말농장에서 직접 재배하신 루꼴라로 만든 샐러드와 베이글 샌드위치입니다. 퇴근하고 한 끼 정도 건강하게 먹고 싶어질 때나, 냉창고에서 루꼴라가 시들어 갈 때면 종종 저녁 식사로 만들어 먹습니다! 베이글 안에는 요거트와 견과류만 넣어도 포만감이 느껴져 든든한 저녁이 되더라고요!





정유석 대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실증화처 재료시험부



요즘 핫한 '포케'입니다. 집에서 건강한 채소와 달걀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와 점심으로 먹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챙기는 친환경 한 끼, '나만의 포케'를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이유빈 대리

본사 기후대응기금센터 기금기획부



토핑이 다양하게 들어간 샐러드 도시락입니다. 신선한 양상추, 파프리카 등 신선한 채소와 병아리콩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다회용기에 담아 직접 싸 옵니다. 이 도시락은 환경과 건강을 모두 고려한 소중한 한 끼입니다.



이시현 주임

본사 안전관리실 건설안전부



연어 포케와 아보카도 덮밥입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쁘게 담아 먹으면 눈도 즐겁고, 그만큼 맛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독자 임우택 님

서울시 은평구



아내가 얼마전부터 채소 구독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기농, 친환경 채소이지만 약간 못난이라고 하네요. 오늘 저녁은 당근, 시금치, 단무지, 우엉만 넣은 채식김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채소의 달콤한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하더라고요.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독자 엄정윤 님

고양시 덕양구



김치볶음밥을 만들 때 보통은 햄을 넣어서 만드는데 이번에는 들기름과 김치를 볶아서 만들어봤습니다. 온 집안에 들기름 냄새가 폴폴~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언젠가부터 채소를 일부러 챙겨먹지 않으면 먹을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주말에 기존에 해먹던 음식에 응용해 봐야겠어요. 채식이 환경도 지킬 수 있다니, 먹으면서 마음도 흐뭇해졌습니다.

‘함께하는 책 읽기’의 힘

독서 동호회 ‘북치고 잔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아늑한 카페의 창가에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후 12시 10분이 되자 사람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이들의 손에는 책 한 권씩이 들려 있었다.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 묻어났다. 소중한 점식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독서 동호회 ‘북치고 잔치고’의 회원들이다.

“어서 와요~!”, “오랜만이예요!”, “오늘은 무슨 책 가져왔어요?” 반가운 인사와 함께 카페는 금세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졌다.

‘북치고 잔치고’는 올해 2월 창단한 동호회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치고 잔치고(이하 ‘북잔치’)는 ‘책(BOOK)과 커피(잔)를 함께 즐기는 모임(잔치)’을 의미한다. 현재 회원은 32명으로, 신생 동호회치고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성장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업장대기 처 사업장대기정책부 이경진 대리가 동호회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북잔치는 책과 함께 동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분들, 특히 지금 동호회 회원이 된 동료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점차 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이 좋은 분위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동호회를 창단했습니다.”

‘북잔치’의 특징점은 각자 취향에 맞는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있다. 같은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일반적인 독서 모임의 틀을 넘어,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추구한다. 덕분에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음성안내 QR코드

따스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조용한 카페, 각자의 책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이들이 있다. 손에 든 책은 모두 다르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오늘은 독서 동호회 '북치고 잔치고'의 정기 모임일. 책을 통해 소통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글 한울 사진 김경수





책 읽기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

회원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고, 조용히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카페 창가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봄 햇살이 책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부드러운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다. 그 속에 책장 넘기는 소리가 부드럽게 스민다. 집중한 눈빛으로 책 속에 몰입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책을 읽는 시간은 단순히 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책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또한 책 읽기는 지식의 폭을 넓히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감정의 깊이를 더하는 값진 경험이 된다. 다양한 이야기와 사상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더 넓고 깊은 통찰을 얻기 때문이다. '북잔치'의 총무직을 맡고 있는 글로벌협력처 국제환경협력사업부 한윤경 주임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회사에 입사한 후, 같은 부서 동료가 점심시간에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매우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회사의 정보 자료실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서점에 가면 책을 사서 소유하



고 싶은 욕구도 생겼고, 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동호회를 만들면서, 저처럼 책에 관심을 갖고 책을 더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책은 단순히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 자신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책을 읽을 여유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잔치’ 회원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책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 노력한다. 탄소중립지원처 기후정책지원부의 조은애 과장도 그중 한 명이다. “일곱 살 아이를 키우다 보니 집에서는 책을 읽을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쫓기다 보니 책을 읽을 여유가 없죠.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도 책을 읽을 시간이 필요했어요. ‘북잔치’는 제 스케줄에 맞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고, 책에 몰입하는 시간을 통해 재충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북잔치’가 열어 갈 내일을 기대해!

‘북잔치’의 또 다른 강점은 열정적이고 주체적인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회원들은 먼저 모임을 제안하고, 읽은 책을 나누며 새로운 활동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한다. 자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큰 자극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경진 대리가 동호회 활동이 가져다주는 효용을 전했다.

“공단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잠깐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결국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북잔치’는 단순한 독서 동호회가 아니라, 독서와 문화를 함께 즐기는 동호회로 기획되었다.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을 넘어, 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책의 즐거움과 가치를 더욱 깊이 체험하며 독서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북잔치’는 지금까지 정기적인 독서 활동 외에도 독립서점 방문, 문학기행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사내 어린이집과 협업하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동호회로 거듭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전파하고자 하는 ‘북잔치! 책과 함께, 사람과 더불어, 소통과 영감을 나누는 ‘북잔치’가 만들어 갈 내일의 더 큰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는 커져만 간다.

Mini Interview



이경진 대리(회장)

사업장대기처 사업장대기정책부

‘북잔치’를 자연스럽게 오래 지속되는 모임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책을 매개로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회원들과 함께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는 즐거움을 오랫동안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같이 읽는 즐거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북잔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한윤경 주임(총무)

글로벌협력처 국제환경협력사업부

‘북잔치’는 각자 취향에 맞는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동호회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면 삶이 더욱 즐겁고 의미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북잔치’를 통해 책을 읽는 동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푸루美 14기 환경 알리미로 거듭나다

발대식 & 친환경 가족 지갑 만들기 체험

지난 1월 16일,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대학생 기자단 푸루美 14기 발대식이 진행됐다. 한국환경공단 푸루美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캠페인, 사회공헌 활동 등 국민의 환경인식 개선 활동을 알리는 것이 목표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푸루美 14기의 발대식과 친환경 체험 현장에 함께했다.

정리. 편집실 사진. 한국환경공단

환경 알리미 푸루美 14기의 힘찬 시작

한국환경공단 대학생 기자단 푸루美 14기 발대식이 있던 아침, 인천 검암역에 모인 14기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먼저, 푸루美 14기는 한국환경공단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공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홍보영상 이후,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담긴 면접 때 영상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함께 웃음을 터트렸다.

다음으로 14기 기자단 위촉장과 명함 수여식이 진행됐다.

최연서 기자는 “명함을 받고 나니 기자단으로서 소속감이 생깁니다. 기자단으로서 자랑스럽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 특히 이번 14기 정다운 기자는 발대식 당일 오전에 군 복무 전역 신고를 하고 바로 기차를 타고 발대식 현장에 도착했다고 전해, 현장에 있는 참석자들이 그의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2부에서는 10개월 동안 기자단 활동에 도움을 줄 글쓰기 방법, 키워드 선정 등 콘텐츠 제작 전반에 대한 뉴미디어 교육이 진행됐다. 환경 알리미로서 사명감을 가진 푸루美 14기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교육에 집중했다.

한국환경공단 대학생 기자단 푸루美 14기





14기 백동혁 기자는 “푸루美 기자단으로 선발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당찬 각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발대식의 하이라이트인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진행됐다. 푸루美 14기는 조별로 나눠 우리 조의 파워 J 뽀끼, 네 글자 이어말하기, 환경 관련 초성 퀴즈 등 게임을 즐겼다. 발대식이 끝날 즈음, 그들은 초반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팀워크로 똘똘 뭉친 푸루美 14기로서 한 뼉 성장해 있었다.

환경과 친해진 특별한 체험

2월 13일, 푸루美 14기는 친환경 지갑 만들기 체험을 하기 위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강사는 체험에 앞서 새활용의 의미와 낭비로 인해 버려지는 소재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재활용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다. 낭비되는 소재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에 대해 강의를 듣는 푸루美 14기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본격적으로 친환경 지갑 만들기 시간이 진행됐다. 테이블에는 버려진 가죽, 족집게, 실, 친환경 접착제, 망치 등이 준비되어 있



었다. 푸루美 14기는 서로 어떤 색으로 할지, 내가 더 잘 만들겠다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강사의 지도에 따라 한 뼉 한 뼉 가죽을 엮어가며 만든 형형색색의 친환경 가죽 지갑을 한데 모아놓고 서로의 지갑을 자랑하며 체험에 흠뻑 빠지기도. 14기 임세하 기자는 “새활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번 체험을 통해 정확한 개념도 알게 되었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라고 소감을 전했다.

푸루美 14기에게 이번 체험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평소 환경을 위해 자신이 해왔던 사소한 실수와 환경보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환경인식 개선 알리미로서 푸루美 14기의 힘찬 출발을 응원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후대기본부 탄소중립지원처 기후정책지원부

기후정책지원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 한울 사진. 오충근



음성안내 QR코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부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관으로서, 기후정책지원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사업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원 및 본부 행정 업무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대웅 부장이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기후정책지원부는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 탄소중립 보고 체계에 기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을 통해 국가 통계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매립 부문에서는 국내 매립지의 특성을 반영한 메탄발생속도상수(k)를 새롭게 개발했

고, 이 값은 향후 국가보고서와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이행 평가의 핵심 도구로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해 국가, 기업, 지자체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감축 노력 평가와 협상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국내외에 공표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감축 목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고는 기후금융과 탄소시장 등 기후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정책 수립과 이행의 근거로서 국민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협업과 소통,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기후정책지원부는 기후대기본부의 선임 부서로서 탄소중립, 기후대응,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환경부와 여러 대외 기관의 요구 사항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나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소통과 협업이 업무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해야 할 때가 많다 보니,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부서원들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며,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가 맡은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는데요. 부서원들의 이 같은 노력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수희 차장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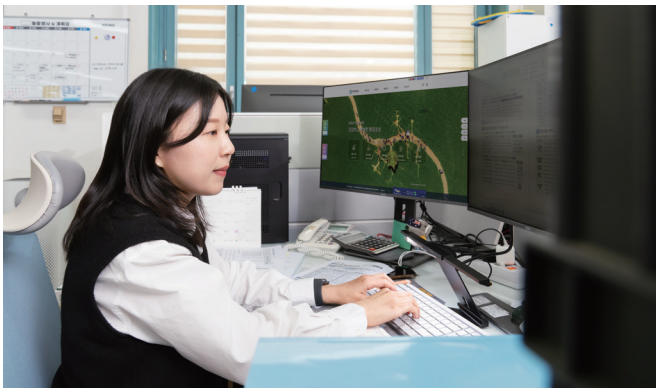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데이터와 정책을 연결하는 과학 기반의 전략적 업무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력, 정책적 통찰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에 따른 국가감축목표(NDC)’나 ‘격년투명성보고서(BTR)’와 같은 국제 검토 체계에서는 정확성, 투명성, 정합성이 국가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부서원 모두가 ‘수치 하나하나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명감으로 데이터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산정 및 계수 개발 업무의 필요성과 가치가 현장에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운 점도 있다고. 산정 체계는 정책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이지만,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기술적 업무로 여겨져 협력 기관이나 관계자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기후정책지원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책 결정의 과학적 근거로 연결 지어 설명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 관리계획의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후정책지원부. 이를 위해 5년마다 산정 방법론 개선, 활동 자료 품질 향상, 계수 불확도 산정 등을 포함한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 배출량 산정과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의 기초가 되며, 국가 NDC 달성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된다.

기후변화 대응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적 동향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기후정책지원부는 3월부터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신 기후이슈와 정책동향을 공유하는 '기후 대기포럼'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탄소중립지원처 김형식 처장은 "한국환경공단은 국가의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 민간 부문에 대한 변화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고, 이를 설명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물론, 때로는 한발 앞서가는 자세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대기포럼은 본부의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기후정책지원부의 목표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정책지원부는 2025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을 한층 정교화하여 국가 감축 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탄소중립에듀센터' 건립 사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기후 및 대기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정책지원부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다.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기후정책지원부.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기후정책지원부의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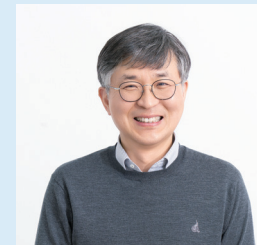
Mini Interview



김형식 처장

기후대기본부 탄소중립지원처

기후변화 관련 이슈는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규제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기후정책지원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선도적인 부서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대웅 부장

기후대기본부 탄소중립지원처 기후정책지원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업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후정책지원부는 2030 국가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화된 사업 방향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임 부서로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다 세계 속 친환경 도시



음성안내 QR코드

친환경 도시란 생태도시라고도 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는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심각한 환경오염에서 친환경 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한 세계 속 친환경 도시를 소개한다.

글: 편집실 참고 자료: 월드투데이, 환경부 공식블로그

세계 최초 무공해 건설 실시,

노르웨이 오슬로시

노르웨이의 수도이자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로 알려진 오슬로시는 노르웨이 남부 해안에 위치하며 크기는 남북 약 40km, 동서 약 20km이다. 도시 안에는 녹지와 숲과 공원이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특히 아름다운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이토록 아름다운 오슬로시는 과거에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렸다. 1993년 옛 시가지를 살리기 위해 ‘환경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로 발돋움했다.

먼저 노르웨이는 도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외곽으로 옮기고, 3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도로 개편정책을 펼쳤다. 또한, 휘발유를 대신해 바이오메탄가스를 이용하여 공공버스를 운행해 매년 44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차량 진입이 금지된 도시 지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자동차 없는 도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년 사이 700개의 주차공간을 없앴고 대신 자전거도로와 작은 공원, 쉼터 등을 만들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자동차 소음, 공해가 감소되었고, 환경정책 계획에 따라 강, 바다, 숲 등이 연결되는 녹색길을 조성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르웨이는 산유국임에도 2025년부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석유를 팔아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친환경차에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전기차 구매를 독려했다. 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판매된 신차 14만 1,413대 중 전기차가 7만 6,789대로 54.3%에 달했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을 펼치며, 사용자의 편의도 함께 추진했다. 인구 60만 도시 노르웨이 오슬로시에는 1,300개나 되는 세계 최대 규모 도로변 충전기가 갖춰져 있고 공공장소에서 이용이 가능한 충전기만 2,000개가 넘는다.

이 밖에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38%를 차지하는 건설업에서 오슬로시는 모든 도시 건설 현장을 배출 제로로, 2030년까지는 공공 또는 민간의 모든 건설 작업을 배출 제로를 목표로 세계 최초로 무공해 건설을 실시했다. 오슬로시 공공 도시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굴착기, 로더 등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계는 디젤이 아닌 전기로 운용하며 소음과 연기를 최소화했다.



노르웨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오슬로시 자전거 주차공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원조, 브라질 쿠리치바

주민 1인당 52m²의 녹지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의 친환경 생태도시 브라질 쿠리치바는 브라질 남부 최대 도시로 많은 인구와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 이후 1971년 브라질 최초 관선시장으로 당선된 건축가 출신 ‘자이메 레르네르’의 도시계획과 환경정비 등을 통해 쿠리치바는 거대한 숲 속에 묻혀있는 녹색 도시로 거듭났다.

쿠리치바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통체계로 유명하다. 쿠리치바는 삼중 도로 체계를 도입해 중앙 도로에 급행버스를 위한 버스전용차로를 두고 도로 양쪽에 자동차 도로, 일방통행 도로를 두게 했다. 또한, 급행·지역·직통버스 등을 색깔로 구분해 버스 간에 원활한 환승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교통 정책은 서울시와 세종시가 벤치마킹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모델이 되었다. 버스 3개를 이어 붙인 ‘굴절형 버스’도 도입했다. 최대 270여 명의 승객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엔진의 공회전을 방지하여 대기오염을 약 30% 정도 저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는 성과를 냈다.

또한, 쿠리치바 도심 한가운데에는 약 1km에 달하는 보행자 중심도로인 ‘꽃의 도로’를 만들어 시민 소통공간이자 주말에는 각종 공연과 행사가 열리는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정책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모아오면 쓰



쿠리치바 BRT

레기 수거량에 맞게 버스트코인이나 식품 주머니로 교환해주는 ‘녹색 교환’ 정책을 펼쳤다. 여기서 받는 교환권은 ‘쿠리치바의 돈’이라고 불린다. 현재 쿠리치바의 쓰레기 분리배출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재활용 정책에 참여한다.

쿠리치바는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 인접 지역에 공원을 개발하고 우수지 역할을 담당하는 호수를 조성했다. 또한, 빈민들의 밀집 주거지역에는 전체 면적의 50%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자연 상태로 두도록 조치해 토양의 빗물 흡수를 늘렸다. 이러한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로 쿠리치바에는 브라질의 도시공원 중에 가장 큰 이파수 공원과 바리귀 공원, 사용 로렌소 공원 등이 생겨났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쿠리치바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우수 환경과 재생상’을 수상,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 ‘지구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 등으로 불렸다.

쿠리치바 식물원





프라이부르크 태양광발전장치

쓰레기 제로 정책, 독일 프라이부르크

독일의 환경 수도로 유명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위치한 인구가 20만 명 남짓한 작은 도시이다. 전 지역의 40% 이상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설립 시 훼손된 만큼의 자연을 다른 곳으로 옮겨 재현해야 할 정도로 환경보호에 철저한 곳이다.

탈 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원자력 없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도시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1992년부터는 공공건물이나 시가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토지에는 저에너지 건축물만 건축을 허가하고, 1996년부터는 에너지 절약형 형광 램프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가정에 공급하는 등 프라이부르크는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프라이부르크는 시민 1인당 소유한 태양광발전장치 시설 수가 독일 내 가장 많으며, 실제로 프라이부르크 전체 에너지의 14~15%가 태양열로 충당되고 있다. 보통 생태마을 대부분의 주택들은 패시브하우스, 에너지플러스 하우스로 건설되었다. 패시브하우스는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건축물이고, 에너지플러스하우스는 한 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건축물이다.

녹색 교통 정책에서는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우선 순위에 두어 프라이부르크 전체에 500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낮 시간에 자동차가 구시가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며, 외곽에서도 자전거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

되어있다. 또한, 대중교통 트램을 장려하기 위해 교통비를 인하하고 지역승차권(환경패스)을 도입했다. 그 결과, 최근 20년간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3배 늘어나고 자동차의 교통 부담률은 29%로 떨어진 반면, 자전거의 교통 부담률은 28%로 자동차에 육박한 수준으로 올라갔다.

프라이부르크는 분리수거를 향상을 위한 정책도 펼쳤다.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제공해주고,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을 구매하고,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켜 거름으로 사용하는 등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도 프라이부르크는 종이 수요의 약 80%를 재활용 용지로 사용하고 천 기저귀 사용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강의, 홍보활동, 리사이클 전문 회사 설립 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트램

책冊(책), 서촌의 작은 친환경 공간

때로는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발견하고 싶다. 여기에 문화와 예술이 더해지면 더욱 특별한 순간이 된다. 싱그러운 색채가 가득한 봄날, 북카페를 찾아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독서로 차분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일상 속 녹색 소비를 지향하며, 도심 속 친환경 공간을 제공하는 책책. 여유와 행동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이번 주말 나들이 삼아 활자 속의 '침'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글. 함유진

지속가능한 여유를 찾아서

종로구 체부동의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큐레이션 책방이자 카페인 '책책'이 모습을 드러낸다. 단아한 한옥 풍 가게는 주변의 고즈넉한 거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외관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전면 창에는 '환경을 지키는 지구·편의 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환경을 생각하는 물건들을 큐레이션해 선보이

며, 내부에는 커피박으로 만든 연필,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우산, 폐지 카드 포켓 등 꼼꼼하게 선별한 친환경 생활용품이 주제별로 전시되어 있다. 각 제품에는 제작 과정과 소재에 대한 설명이 더해져, 방문객들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자연스럽게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드톤 인테리어로 꾸며진 ‘책책’의 한 편에는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서가가 마련되어 있다. 매장을 방문한 이들이 자유롭게 펼쳐 볼 수 있는 서적과 판매하는 서적을 구분해서 놓았다. 요리 관련 책들, 인기 베스트 책들, 다른 책방에선 볼 수 없는 책 등 주인장의 큐레이션으로 꾸며진 책들로 고르는 재미가 있다. 한쪽 벽면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환경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서가에는 ‘책책’이 직접 기획·제작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브로셔들이 놓여 있다. 환경 무가지 <클리마투스 컬리지(Climatus College)>는 매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펼쳐볼 수 있다. 이 아담한 공간은 출판사, 서점, 카페, 제로웨이스트숍, 전시장이 하나로 융합된 장소이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 스토어와 환경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환경 감수성을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독려하고 체험의 문턱을 낮추려는 고민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매거진을 통해 환경 감수성을 높인다

제로 웨이스트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책책’에서 또 하나 시선을 끄는 것은 바로 환경 무가지 <제로제로>이다. <제로제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아내며,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영감을 전한다.

‘책책’은 오랜 시간 ‘소비’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다. 완전한 ‘제로 소비’를 꿈꾸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며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해왔다. 결국 가능한 많은 사람과 함께 현실의 문제, 삶의 방법을 공유할 때 좀더 유용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제로제로>를 창간했다. 그런 고민 끝에 탄생한 환경 매거진 <제로제로>는 환경 실천을 하는 이들



의 이야기를 담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있다. 이외에도 멸종위기 동물들의 일러스트를 담아 캘린더도 제작했다. 이는 일상 속에서 기후감수성을 높이려는 ‘책책’의 세심한 실천 중 하나다.

계절이 피고 지듯,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우리 일상 속에 스며 있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이는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 ‘책책’은 책책이 제일 잘하는 방법을 통해 환경 감수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먼저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 작은 실천을 통해 불편함을 감수하며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책책’은 이처럼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속에서 책과 커피 한잔의 여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지속가능성을 꿈꾸며 소비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책책’이 앞으로 어떤 친환경 행동을 실천할지, 그 여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가길 11

영업 시간

11:00~19:00
매주 월요일 휴무

전화

0507-1422-7411

인스타그램

chaegchaeg



QR코드를 스캔하면
책책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일산해수욕장 주변시가지 전경

울산 해파랑길 8코스, 자연이 선사하는 감각적인 여정

새로운 시작을 품은 계절, 걷기 여행은 어떨까. 자연이 일군 경관을 따라 순간순간 다채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울산 해파랑길 8코스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햇살 아래, 사시사철 푸르름을 간직한 소나무의 기개와 유채꽃의 선명한 색채를 만끽해 보자.

글. 함유진 사진. 대한민국 구석구석, 울산시청



봄을 느끼며 걷는 울산 해파랑길 8코스

염포산 입구에서 출발하여 일산해수욕장에 이르는 울산 해파랑길의 8코스. 이 시기, 봄의 기운이 가득하다. ‘해파랑길’이라는 이름은 동해의 떠오르는 해와 푸르른 바다를 의미하며, ‘랑’은 ‘함께’를 뜻하는 조사로, 길을 걸으며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감을 표현한다. 약 12.4km에 걸쳐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이 길은, 그 이름처럼 선명한 해와 푸른 바다의 파도 소리 속에서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코스다. 이곳은 개발을 최소화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산책로로, 친환경 도보 여행을 즐기기에 이상적이다.

슬도의 봄, 파도와 유채꽃의 조화

울산 방어진항 앞에 자리한 작은 섬, 슬도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는 소리가 구슬픈 거문고 연주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봄철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을 스칠 때마다 파도는 기분 좋은 선율을 만들어 낸다. 특히 봄의 슬도는 유채꽃이 만개해 황금빛 물결의 장관을 연출한다. 고운 모래에 닿는 봄의 물결을 바라보며 자연이 빚어낸 봄의 선율을 따라 걸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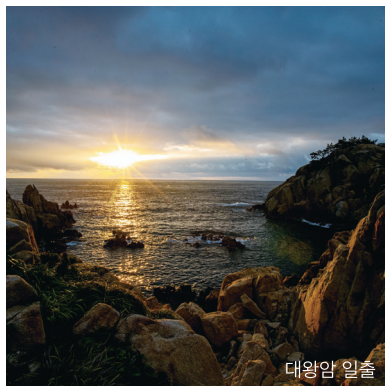
한때 무인도였던 슬도는 자연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존된 덕분에 해양 생태계가 풍부하게 살아 숨 쉬는 섬이



슬도 바닷길 유채꽃



슬도 봄 꽃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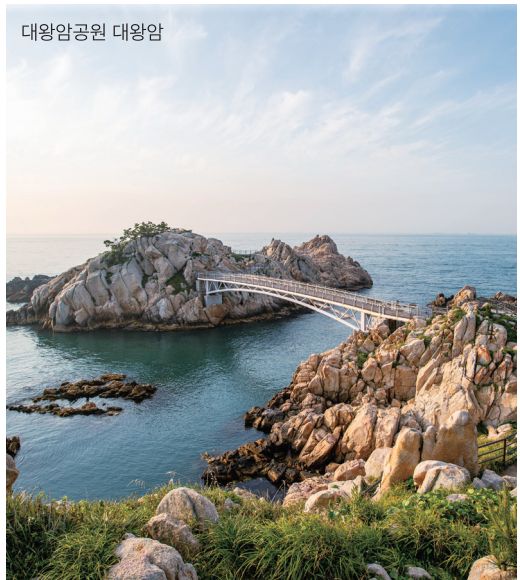
대왕암 일출



대왕암공원 송림숲



음성안내 QR코드



대왕암공원 대왕암

다. 섬 중앙의 등대에서 내려다본 울산의 해안선은 그 전망만큼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을 느끼게 해 준다. 등대 곁에는 여행자의 발길을 붙드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다. 잠시 앉아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를 감상하며 사색에 잠겨도 좋다.

대왕암공원의 자연과 역사를 누비다

유채꽃 길을 따라 걸으면 100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은 대왕암공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일출 명소로 유명하다. 울산 12경 중 하나로 꼽히는 생태관광지인 만큼 흙길 위를 걷다 보면 1만 5,000그루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가득 채운 피톤치드 향이 몸과 마음에 스며든다. 출렁다리를 건너 산책로를 조금 벗어나면 신라 문무대왕의 전설이 잠든 대왕암이 그 자태를 드러낸다. 웅머리처럼 툭 불거진 바위 위를 걸으면, 발끝에서부터 전해지는 위엄이 전신을 감싼다. 대왕암의 고요함 속에서 자연과 역사의 숨결을 느껴 보자.

에코 로드 Tip



주변 가볼 만한 곳

강동사랑길

하트 모양으로 이어진 7개 구간에 각기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기 좋은 둘레길이다.

위치 울산 북구 구유동 654-1번지 외 7개소

현대예술관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예술적 감성과 영감을 채울 수 있는 곳이다. 다채로운 문화시설이 구비되어 한층 더 깊은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위치 울산 동구 명덕로 10

방어진 공동어시장

바다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수산시장으로, 해안을 따라 드라이브 코스가 펼쳐져 있어 자연 속 힐링도 할 수 있다.

위치 울산 동구 중진2길 3-1





-미세먼지와 생활 속 대처법-

일러스트 구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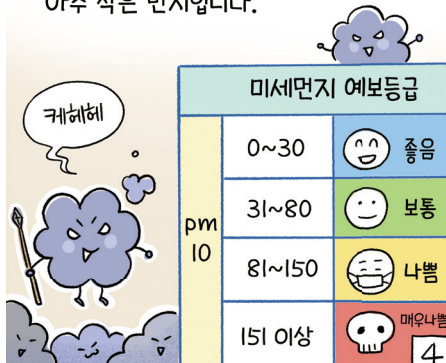


2



3

미세먼지란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작은 먼지입니다.



4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우리 몸에 더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추위가 물러가고 생동감 넘치는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따뜻한 날씨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급증하는 시기다. 꽃가루, 미세먼지 등 봄철 불청객이 방심한 순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봄철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과 효과적인 예방법을 알아본다.

글 함유진

봄철 불청객, 알레르기 주의보!

봄철 알레르기 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봄철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꽃이 만개하는 계절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다. 그러나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고통의 계절이기도 하다. 봄철 알레르기의 주된 원인은 꽃가루이다. 나무와 풀에서 퍼지는 꽃가루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지며 눈과 코를 자극해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한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미세먼지 역시 알레르기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다. 특히 봄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교차가 큰 봄철의 온도 변화도 면역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알레르기 증세를 심화시킬 수 있다.

알레르기 질환 주요 증상, 이렇게 확인하세요

▶ 알레르기 비염

콧속 점막이 특정 물질에 과민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반복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 천식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폐에 침투해 기관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가슴의 답답함과 호흡곤란이 반복된다.

▶ 알레르기 결막염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눈을 덮고 있는 결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가려움증, 눈곱, 충혈 등이 있으며, 보통 알레르기 비염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음성안내 QR코드

봄철 알레르기 질환 생활 속 대처법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유해물질 흡입을 줄이고, 돌아온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하자. 옷에 묻은 꽃가루나 먼지도 털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개인위생과 청결에 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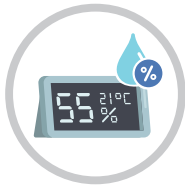
코와 입은 세균과 바이러스, 진균 등 외부 유해물질이 침투하기 쉬운 주요 감염 경로다. 환절기 알레르기를 예방하려면 손을 자주 씻고, 구강 위생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 씻기는 최소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해야 하며, 외출 후나 식사 전후에는 필수다. 또한, 양치 후 가글을 활용하면 구강 내 유해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 환기와 습도 관리 철저히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환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 계절과 대기 상태에 따라 적절한 환기 시간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오후 3시~5시는 대기가 안정적이고 바람이 강하지 않아 실내 공기 교체에 적합하다. 또한, 실내 습도가 낮으면 눈과 코가 건조해져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가습기를 활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자.

▶ 면역력 강화 습관

위 방법도 필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깅, 자전거 타기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권장 수면시간(7시간)을 지키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 신체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이 좋다. 생강차나 허브차를 자주 마셔 체내 온도를 높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만, 카페인 들어 있는 차는 기관지를 쉽게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Check Point

제철 식재료로
면역력을 키워요!



봄내음 물썬, 미나리

봄의 생기가 만연해질 때면 미나리가 제철을 맞이한다. 풍부한 비타민C와 해독 효과 덕분에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시기에 특히 유용하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히스타민의 억제 효과로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봄나물의 제왕, 두릅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봄나물인 두릅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여 준다. 이로 인해 환절기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쓴 맛이 나는 채소는 몸속 체온을 조절해 체질 개선에 효과적이다.

K-eco NEWS

한국환경공단, 저출생 위기 극복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이 3월 19일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개선과 관심 향기를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 기획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이기 일 제1차관을 시작으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은 차기 주자를 지목해 이어가는 방식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인천지역 공공네트워크 협력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병익 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캠페인 참가자로는 인천지역 공공네트워크 협력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지목했다.

한국환경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2년 연속 보건복지부 가정친화인증을 받은 일·가정 양립 우수기관으로 난임치료,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임신·출산 직원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출산 축하금 신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등 가정 친화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공부방 조성,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환경 전문성을 활용한 ‘환경 교육 특화 늘봄학교 운영’ 등 지역 취약계층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은 본사가 소재한 인천광역시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사회공헌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과의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보유시설 개방 우수 공공기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은 “국가적 난제인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라며 “우리 한국환경공단은 환경 분야 전문역량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에너지 글로브 내셔널 어워드' 수상

“해외 환경시장 진출 본격화… 마중물 역할 기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환경 분야의 세계적 권위인 '에너지 글로브 내셔널 어워드(Energy Globe National Award)'를 2년 연속 수상했다. 1999년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는 환경보호를 위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국제적 권위의 환경상이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프로젝트가 제출되며, 이번에는 141개국에서 2,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열띤 경쟁을 펼쳤다.

한국환경공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국민 환경 서비스인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으로 이번 상을 수상하였다. 에어코리아는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한 다양한 대기정보 제공 국가 통합 '미세먼지 정보' 공유 'OpenAPI'를 통한 개방형 대기 정보 활용 환경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위젯 서비스'와 '쉬운모드 앱'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 점 역시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에도 'CleanSYS(ICT 기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관리시스템)'로 동일 부문에서 수상하여, 2년 연속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전문기관으로서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2025~2029 중장기 경영 목표를 설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과 청정대기 실행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글로브 재단을 대신하여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무역대표부는 2월 20일 한국환경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임상준 이사장에게 공식 인증서를 전달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연이은 수상을 통해 환경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한국환경공단의 환경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환경시장 진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푸루·그루와 함께 푸는 '이모지 퀴즈' 이벤트

한국환경공단 사보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25년 봄호,
잘 읽어 보셨나요?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25년 봄호를 읽고
퀴즈에 응모해 보세요!

이모지 퀴즈

01.



人 古 7 天

이모지 퀴즈 01

- 힌트①** 제품의 사용 주기를 연장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자원을
재활용 해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
힌트② 절약을 넘어 생산과 소비의 모든 단계에서 자원의
순환을 고려하는 구조(지면 17쪽)

02.



표 리 7

이모지 퀴즈 02

- 힌트①**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환경 보호 실천 방법
힌트② '줍강'이라고도 함(지면 19쪽)

03.



L 리 O O

이모지 퀴즈 03

- 힌트①** 아름다운 오로라를 감상 할 수 있는 나라
힌트② 세계 최초 무공해 건설 실시(지면 45쪽)

이모지 퀴즈 정답 보내는 방법



방법 1 독자엽서
정답과 함께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를 읽은
소감을 적어 우체통에 넣어준다.



방법 2 웹진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에
접속해 '독자 참여'코너를
찾아 정답을 적는다.

응모 마감 : 5월 20일까지
당첨자 발표 : 다음 호 게재 및 개별 통보



QR 코드를 클릭하면
웹진에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5 SPRING SPECIAL EVENT

EVENT 01

친환경 라운지

소식지 32~33쪽에 실린
<친환경 라운지> 코너의 친환경
챌린지에 참여해보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낼 곳
2025keco@gmail.com

EVENT 02

이모지 독자퀴즈

58쪽에 실린 '이모지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낼 곳
웹진 독자 참여 코너 또는
독자엽서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EVENT 03

독자의견

봄호에 대한 의견이나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낼 곳
이메일(2025keco@gmail.com)이나,
독자엽서에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자연가끼이
사람가끼이



웹진(www.kecowedzine.kr)과
QR 코드로 빠르고 편리하게
사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겨울호의 '에코 누리집' 사용 후기와 독자의견을 소개합니다. <자연가끼이 사람가끼이>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을 위해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친환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봄호 이벤트는 위의 3가지입니다. ◆

에코 누리집 사용 후기

소음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
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
니다. 국민 모두가 보다 조용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단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
니다. _ 박O화

독자의견

폭설과 한파의 계절을 맞아 '겨울철 자연재
해'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안일하게 생각했던 스스로를 반성하고 올
바르고 체계적인 겨울철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해안을 높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
니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이
야기를 듣고 싶어요. _ 이O임



지난 호 엽서 정답자

드림캐처 | 인천시 강화군
썸데이 | 서울시 양천구
코난과포비 | 강원도 강릉시
책벌레 | 서울시 서초구
키 작은 이 | 경기도 하남시
자연사람 | 서울시 송파구
뽕스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송사리 | 서울시 은봉구

※ 이벤트 당첨자의 개인정보는 최소화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식물 이름표 만들기



새싹들이 푸릇푸릇하게 돌아나는 계절.
작은 화분에 푸루와 그루가 함께하는
나만의 식물 이름표를 달아보는 건 어떨까요.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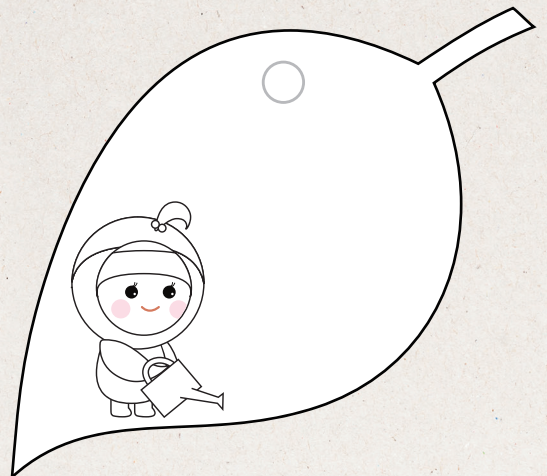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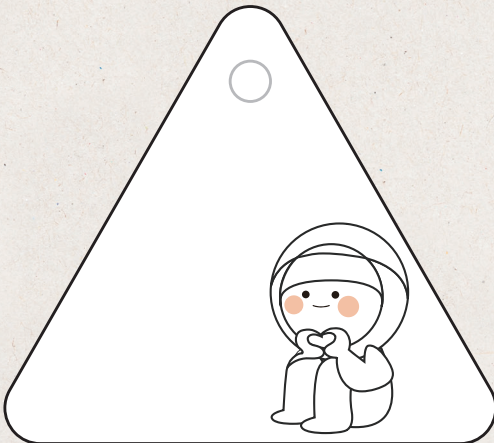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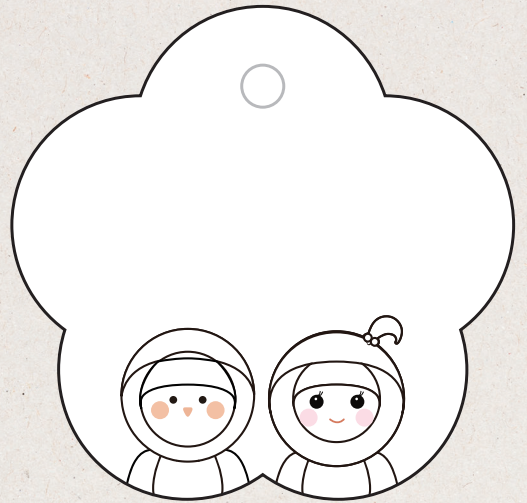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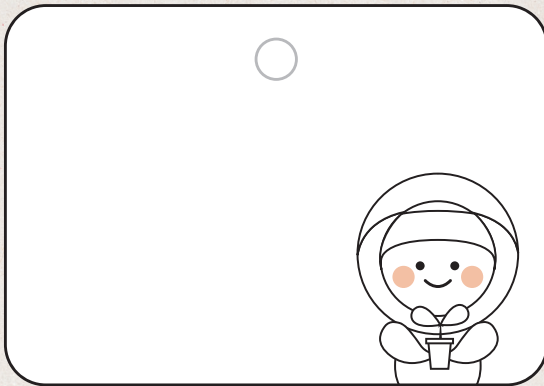
가위, 칼, 색칠 도구, 실 또는 노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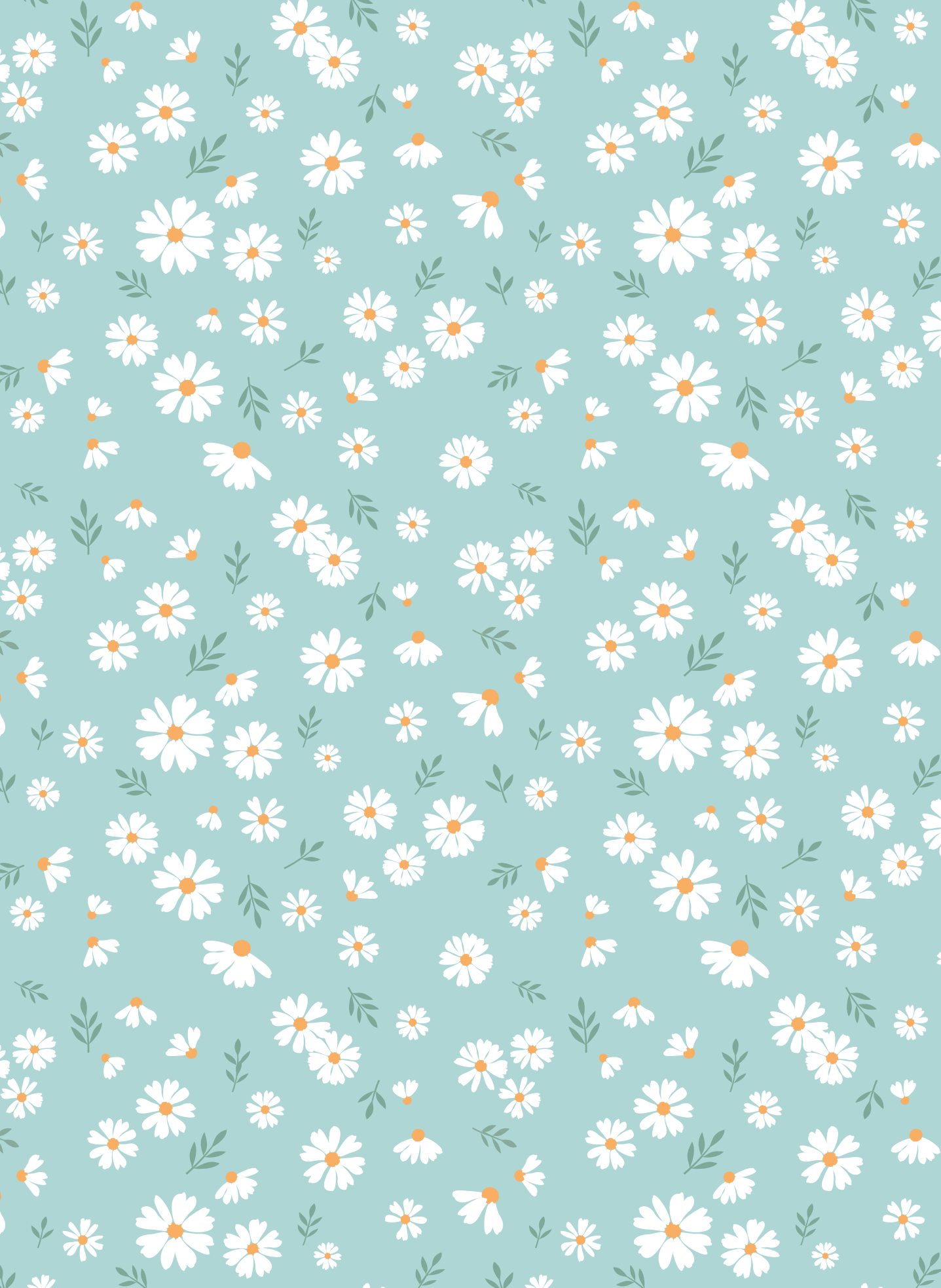
만드는 방법

- ① 도안을 오리기 전에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 ② 구멍을 뚫은 후 도안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 ③ 식물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 ④ 끈으로 연결해 식물에 걸어주세요.



▶
제작방법
영상으로 확인하기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주소

주소변경, 신규구독 및 구독중지를 희망할 경우, 작성해 주십시오.

☐ 주소변경(전, 후 기재) ☐ 신규구독 ☐ 구독중지

※ 주소 : (변경 전)

(변경 후)

※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는 독자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발송 시 수취인명을 '구독자님'으로 일괄 처리해 발송합니다.
또한, 경품 당첨 시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반송되오니
다시 한번 주소 확인 후 발송 부탁드립니다.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 06. 10~

서인천 우체국
승인 40091호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오류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국민소통실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담당자 앞

2 2 6 8 9

우리가 함께 만드는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1. 이번 호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2.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3.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4.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나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이모지 퀴즈 정답

닉네임이 없는 경우 당첨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내주시는 분의 닉네임을 꼭 적어주세요.

닉네임

01.



人 ㅎ ㄱ ㅈ

01.

02.



표 ㄹ ㄱ

02.

03.



ㄴ ㄹ ㅅ ㅅ

03.



이모지 퀴즈의 정답을 표기하여 엽서를 보내주세요. 엽서 마감은 2025년 5월 20일까지입니다.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엽서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K-eco 웹진 바로가기

